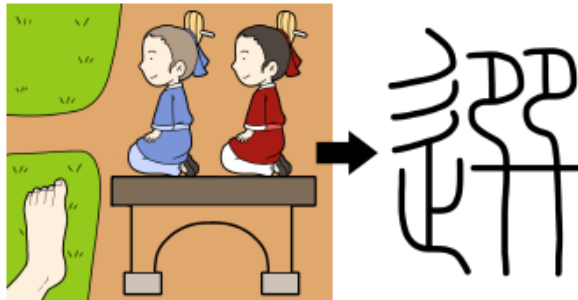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選

가릴 선:

選자는 '가리다'나 '뽑다',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選자는 讠(쉬엄쉬엄 갈 착)자와 巽(유순할 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巽자는 탁자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選자는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린 巽자를 응용해 누구를 보낼 것인지를 놓고 선택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選자는 여러 사람 중의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에서 '가리다'나 '뽑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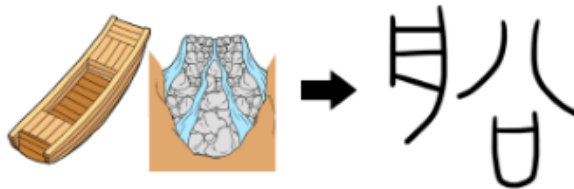
選

소전

選

해서

회의문자①



船

배 선

船자는 '배'나 '선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船자는 舟(배 주)자와 舩(높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舩자는 물이 고여 있는 '높'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船자는 舟자와 沿(물 따라갈 연)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沿자는 물이 높으로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물을 따라 굽어 내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船자는 이렇게 '물을 따라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沿자에 舟자를 결합한 것으로 배가 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舩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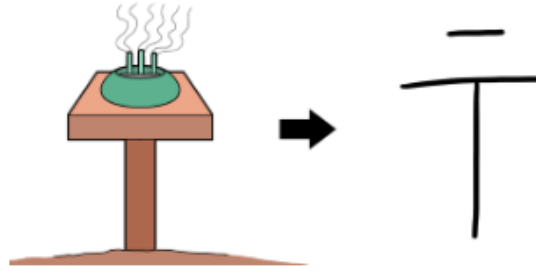
船

소전

船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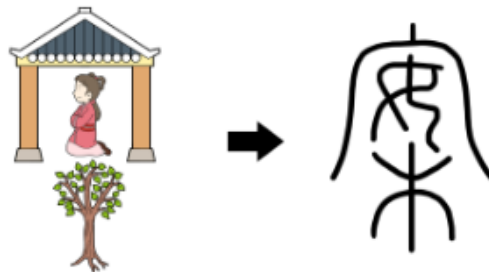
示

보일 시:

示자는 '보이다'나 '알리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示자는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단을 그린 것이다. 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려놓던 단(壇)을 말하는 것으로 示자는 바로 그것을 그린 것이다. 示자는 신에게 제를 지내면 길흉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보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示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신'이나 '귀신', '제사', '길흉'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示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礻 자로 바뀌기 때문에 衣(옷 의)자의 부수자인 衤 자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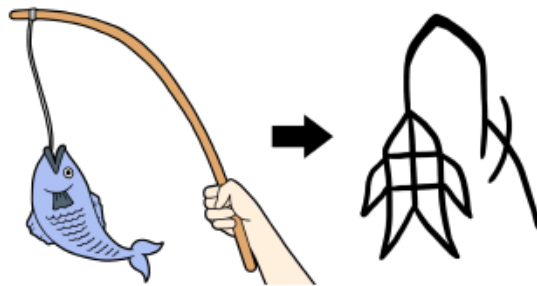
案

책상 안:

案자는 '책상'이나 '생각', '안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案자는 木(나무 목)자와 安(편안할 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安자는 집안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편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앉아있는 모양만이 응용되어 있다. 案자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安자에 木자를 결합한 것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을 뜻하고 있다. 책상은 공부나 업무를 보는 데 쓰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안건', '장부', '공문서'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漁

고기잡을  
어

漁자는 '물고기를 잡다'나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漁자는 水(물 수)와 魚(고기 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漁자가 등장했었다. 어떤 것은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𩺰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또 다른 것은 水자에 물고기를 𩺰 그려넣은 형태였기 때문이다. 금문에서는 양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𩺰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했었다. 지금은 그중에서도 水자와 魚자가 결합한 형태가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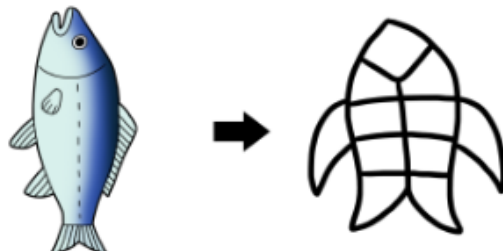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魚

고기/물  
고기 어

魚자는 '물고기'를 그린 글자이다. 魚자는 물고기를 그대로 그린 상형문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魚자를 보면 물고기의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𩺰 잘 묘사되어 있었다. 이후 해서에서 물고기의 몸통과 꼬리를 田(밭 전)자와 𩺰(불 화)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魚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魚자는 물고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활용될 때는 주로 어류의 종류나 부위, 특성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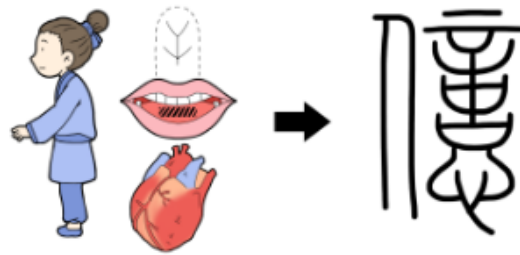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億

억[數字]  
억

億자는 '헤아리다'나 '많은 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億자는 人(사람 인)자와 意(뜻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億자는 소전에서야 처음 등장한 글자이다. 소전 이전에는 意(뜻 의)자가 의미를 대신 했기 때문이다. 意자는 사람의 입과 심장을 연결한 것으로 '뜻'이나 '의미',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億자는 이렇게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意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은 '무수히 많다'나 숫자 단위인 '억'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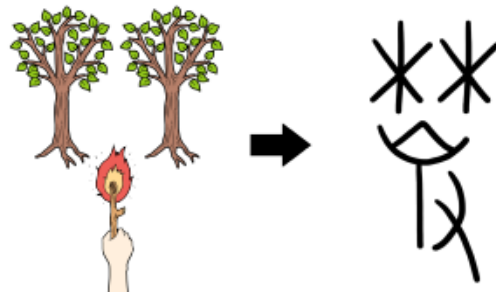
億

소전

億

해서

## 회의문자①



熱

더울 열

熱자는 '덥다', '더워지다', '바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熱자는 火(불 화)자와 執(심을 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執자는 어린 초목을 땅에 심고 있는 執(執)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심다'나 '기세'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보통 熱자는 "불(火)의 기세(執)가 매우 거세다." 즉, '매우 덥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런데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熱자가 본래는 熱(불사를 열)자와 같은 글자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갑골문에서의 熱자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불사르다'라는 뜻의 熱자가 만들어졌고 熱자는 '덥다'라는 뜻으로 파생된 것으로 본 것이다.

熱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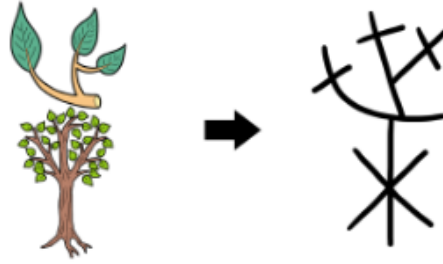
熱

소전

熱

해서

회의문자①



葉

앞 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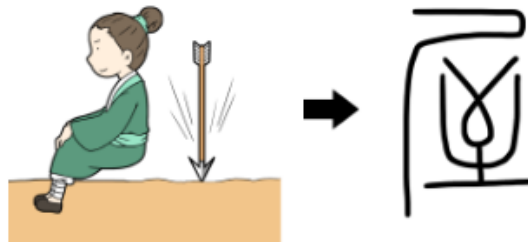
葉자는 '나뭇잎'이나 '세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葉자는 艹(풀 초)자와 葉(나뭇잎 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葉자는 나무 위로 새잎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뭇잎'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본래 '나뭇잎'이라는 뜻은 世(인간 세)자가 먼저 쓰였었다. 世자는 나뭇가지 위에 붙은 나뭇잎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후에 世자가 '세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葉자가 '나뭇잎'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소전에서는 다시 艹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은 葉자가 '나뭇잎'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葉자는 한때 한 뉘 두 뉘과 같이 등전을 세는 단위로도 쓰였었다. 당시의 등전이 나뭇잎을 닮아 엽전(葉錢)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또 낙엽이 떨어지면 한해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나 '세대'를 뜻하기도 한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屋

집 옥

屋자는 '집'이나 '주거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屋자는 尸(주검 시)자와 至(이를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至자는 화살이 땅에 박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다다르다'나 '(영향이) 미치다'라는 뜻이 있다. 屋자는 시신을 뜻하는 尸자에 至자를 더한 것으로 '조상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屋자가 조상의 명패를 모시던 방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집'이나 '주거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